

AUTHOR 박동순

TITLE 칼빈과 교육

IN 정규오 목사 은퇴 기념 논총 '칼빈과 개혁신학'
(February, 1999): 317-332

는 본능이 어떤 인간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칼빈의 이론은 후기 칼빈주의자들의 타문화권 선교에 불을 붙였고, 칼빈의 선교 사상에서 청교도들의 인디언 선교, 그리고 미국의 해외선교 운동으로 연결되어져 온 역사적 성격을 분석 검토해 보면, 그것은 곧 칼빈의 위대한 선교사상을 더욱 심화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교회개혁운동과 함께 선교활동을 전개해 나간 것은 당시 그가 처한 상황에서 선교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우리도 칼빈의 종교개혁정신과 선교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의 개혁과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칼빈과 교육

박 동 순 *

I. 머리말
II. 칼빈의 교육관
III. 칼빈의 교육의 실제
IV. 칼빈의 교육사상의 영향
V. 칼빈주의와 교육의 필연성
VI. 맺음말

I. 머리말

칼빈의 신학사상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업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칼빈의 교육사상 및 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우리의 주의를 끌만한 연구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칼빈을 이해함에 있어 그의 교육관에 대한 연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칼빈과 교육과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칼빈의 교육관, 칼빈의 교육의 실제, 칼빈의 교육사상의 영향, 칼빈주의와 교육의 필연성의 순서로 본문에서의 논의가 진행된다.

* 광신대학교 기독교아동학과 조교수

II. 칼빈의 교육관

칼빈의 교육관은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에의 신념 위에 형성된 세계관, 역사관 그리고 성경의 절대권위를 신봉하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

칼빈의 교육사상의 핵심은 Coetzee가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해 주고 있다.¹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사상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인간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이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들이 이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대상은 인간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지식에 관한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으며 인간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²

칼빈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기독교인의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며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기부정의 과정이 있으며 칼빈은 종교교육 못지 않게 인문교육을 강조하였다. 일반교육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칼빈이 말하는 교육의 주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다. 이 지식들을 얻게 하는 원천은 성경과 자연이다. 기독교인이 학문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고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으므로 참 신앙과 참 학문은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그는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사색적 탐구를 무엇보다도 경계했다. 이러한 지식들을 얻게 하는 원천은 성경과 자연이다.

칼빈이 강조한 교육의 방법은 두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즉,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증정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경과 자연의 계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인간의 방법이다. 바른 교육을 위하여 신앙을 가져야 하고, 자기부정, 기도, 묵상, 선행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칼빈은 교육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이 일을 위하여 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가정과 학교에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는 권위와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교육의 영역을 가정, 교회, 학교 그리고 국가로 보았다. 학교를 통제하는 힘은 교회에 있고 모든 교회는 신자들을 올바르게 교육하여야 한다. //

상술한 칼빈의 교육사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교과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 ② 교사로서의 성부 하나님
- ③ 모범자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 ④ '내적 교사'로서의 성령
- ⑤ 학생으로서의 인간
- ⑥ 학교로서의 교회이다.

또한 칼빈교육의 특색을 정리해 보면

- ① 칼빈의 교육이념은 우주적이고 삶의 전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 P 211. A >
- ② 칼빈의 교육은 하나님의 피조물 또는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문화적 소명을 강조하고 있다. B
- ③ 칼빈의 교육원리는 하나님 중심사상이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다. 교육의 출발점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다. 칼빈주의적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사상은 알파와 오메가이다. 칼빈주의적 교육훈련의 목표는 어린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④ 칼빈의 교육은 인간존재에 대한 진지한 해답을 찾는다. (D)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영으로 인간의 삶과 모든 일에 언제나 간섭하여 그를 의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인간의 본성과 생득적 기능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에게 맡기신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화창조와 영위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요, 이 계기가 바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인간 기업의 기능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은 교육의 기능근거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대전제 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칼빈은 그의 신학과 사상을 성경의 토대 위에서 전개하여 나간다. 모

¹ J. C. Coetzee, *The Calvinistic Contribu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Art in the World*, p. 201-225. 김영규, *기독교 교육학*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6), p. 76-78 참조.

² 김문제역, *기독교 강요* 제1권 15장 (서울: 세종문화사, 1979) p. 344.

든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도 성경이라고 보았다. 성경에 대한 그의 생각은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강해하였고, 각종 주석을 통하여 성경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이 되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성경의 교육의 바른 원리를 제시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⑥ 칼빈은 그의 초창기에 인문주의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인문주의에 한때 심취하였으나 여기에 결코 몰입하지 않고 이것을 초월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써 사용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경향은 그의 대표적 저작인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과 2장에 잘 나타나 있다.

1. 지혜의 총괄

(1)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중 참되고 건실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두가지, 즉 하나님과 우리들에 관한 지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상호간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 것을 낳아 준다는 것을 분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거 동작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행17:28) 누구나 즉각 생각을 들리지 않는한 자신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늘로부터 끊임 없이 우리에게 이슬같이 내려 주시는 축복들은 시냇물처럼 우리를 축복의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궁핍함을 알 때 하나님 안에 무궁무진한 은혜의 보고가 있음을 밝히 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불만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는 진정 그를 갈망할 수가 없다. 그러면 대저 자기가 자신도 모르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은사들로만 자족하고 있는 한 아무도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알게 될 때에는 비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충동만 일으켜 줄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우리 손을 끌어 당기는 것처럼 해서 그를 발견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2)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우리들은 언제나 교만 때문에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우리의 불의, 악, 우매와 분수 등을 심각하게 느끼게 될 때까지는 자신들이 의롭고 완전하고 현명하고 신성한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절대 완전하고 의로우신 이로

또 지혜와 덕을 가진 분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때 우리는 전에 의리는 가면을 쓰고서 우리를 속여서 일시 즐겁게 했던 것이 가장 불의와 죄악에 차 있다는 것과 또 전에 이상하게도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져 행세하던 것이 가장 우매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미워할 것이요. 아주 강력한 것이 되는 것 같이 나타나던 것도 가장 비참하게도 무력하다는 것으로 알고 몰리쳐 버릴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능력들도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까마득한 불완전한 것이다.

위에서 ¹²¹약술한 칼빈의 교육사상은 제네바 대학에서의 교육에서 실제 잘 실현되었다. 제네바 대학에서 칼빈은 특히 인문교육을 강조하였고 어느 오늘날의 기독교 대학교육의 방향설정에 있어 시금석이 되었다. 이제 칼빈의 교육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제네바 대학에서의 실재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III. 칼빈의 교육의 실제

칼빈의 교육의 실제와 관련하여 제네바 대학을 중심으로 칼빈이 중요하게 여긴 종교적 훈련, 경건교육, 교과과정, 음악교육, 교사의 역할과 수업에 대한 학생의 책임성 문제, 교리문답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규칙과 법규들이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네바 대학

칼빈이 영향받은 인문주의 사상은 그로 하여금 교육적 신학자가 되게 하였다. 그는 생각하기를 먼저 학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헬라이어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개혁하여 새로운 신학체계를 정립한 칼빈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적인 기초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네바시를 재조직하여 학교들을 세우고 교육을 펼쳐 제네바 대학을 세우는 데 이르렀다. 칼빈은 1538년에 코르디에와 사우니에와 함께 제네바 대학교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강조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기초가 되며 인문학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준다.

둘째, 제네바 대학교는 성직자 교육만이 아니라 시민교육에도 필요하다.

즉, 성경과 인문교육 그리고 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칼빈의 교육활동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은 제네바 대학의 설립이다.

1559년에 설립되어 베자 슈발리에 그리고 다강과 같은 여러 탁월한 학자들
 들로 구성되었던 칼빈의 유명한 제네바 아카데미에 관해 타운즈(Towns)³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아동부터 대략 16세까지를 위한 스콜라 프리바다(예과-4년)와 대
 학교인 스콜라 퍼블리카(본과 - 3년)로 나뉘어졌다. 스콜라 퍼블리카는 처음에는
 교양과목과 신학만을 가르쳤으나 칼빈은 법학과 의학이 추가되기를 희망하였다.

전체 아카데미는 총장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학생의 입학과 학위수여를 총괄
 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스콜라 퍼블리카를 감독한 반면에 그의
 보조자가 스콜라 프리바다의 교장이 되었다. 총장 휘하에는 히브리어, 회랍어,
 교양과목 그리고 신학을 담당하는 공립교수가 있었고 교장 휘하에는 이사와 교
 사들이 있었다.

스콜라 퍼블리카는 뒤에 제네바 대학교로 널리 알려졌다. 칼빈은 회랍과
 로마의 고전적인 지식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을 각급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Eavey는 칼빈은 인문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또한
 처음부터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제네바를 중심으로 신정정치를 실시했는데 교회의 구조자체를
 교육과 봉사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교육활동을 교회라는 터전 위에 확립하
 였다.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 시의 개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에 힘을 기울
 였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생활의 질서와 계율을 지킬 것과,

둘째, 제네바 시내에 좋은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과,

셋째, 여러 외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명실공히 민족과 국경을 넘는 그
 리스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가 중요하게 사용한 개혁방법은 주로 설교였다. 주일 외에 격주로 매
 일 평이한 설교를 하고 매 금요일에는 질문회를 열어서 각종 질문에 응했
 다. 한편 제네바 교회의 교회 헌법규칙을 발표하고 이것을 감독하는 위원
 회를 설치했다.

그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배움이란 선량한 정치를 조장시키며
 교회를 건전하게 지속시키며 인간성을 잘 보존케 한다고 역설하였다.

2. 종교적 훈련

이비(Eavey)는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의 종교적 훈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⁴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는 수업시간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
 사기도나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끝났다. 낮에 한 시간은 시편을 노래하였
 고 오후 4시에는 전교생이 모여 주기도문을 암송하였고, 신앙을 고백하며
 십계명을 암송하였다. 수요일 아침에는 학생과 교사들이 설교를 경청하였
 다. 토요일 오후에는 전교생이 교리문답서를 공부하였고 주일에는 학생들
 이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남은 시간은 설교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일반적인 인문주의 교과과정 역시 강력한 종교적 교육을 포함하고 있었
 다. 시편을 노래하였고 공중기도를 드렸고 성경구절을 매일 암송하였다.

칼빈은 그 당시의 다른 모든 학교들의 교과과정이 인본주의적이던데 반해
 서 종교적 훈련에 강조점을 두었다.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이같은 사색 및 기독교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말
 미암아 제네바는 사악과 죄가 크게 감소되고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도록 되
 었으며, 요한 낙스는 제네바는 기독교 훈련을 위한 하나의 완전한 학교라
 고 천명하였다.

이 아카데미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신교 설교자들과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되었고, 홀랜드의 레이든 대학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 대학교,
 영국 쉐브리지의 임마누엘 대학의 전형이 되었고 후에 메사추세츠의 하바
 드 대학교의 전형이 되었다.

칼빈의 교육영향을 받은 화란의 칼빈주의자들에 있어서는 종교교육이야

³ Elmer L. Towns, "John Calvin" in towns, p. 170. 유제덕, 기독교교육사 (서울: 기독교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158에서 재인용.

⁴ 벤튼 이비, 김근수/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86), p. 220.

말로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종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젊은 층이 경건하게 훈련받았으며 이 교육에는 세가지 유형의 교리문답이 사용되었다. 부모들에 의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과 교사들에 의해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이 있었다. 공무원들은 이 교육적인 사역을 촉진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기독교 진리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했으며, 그들의 참된 경건을 배양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정규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교육시켜야만 했다.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고자 했으며 이 교육적 책임을 소홀히 한 부모들은 종교법원에 의해서 견책을 당하였다.

도시와 시골에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청소년 학교가 설립되었고, 이 학교들은 개혁주의 교회의 회원인 잘 훈련받은 교사들로 하여금 모든 어린이들을 교육하도록 했다. 그곳에서는 신앙과 행동과 경건을 강력히 훈련시켰다.

각 교사들은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기독교 진리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목사들과 장로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들 방문의 주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교리문답에 입각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조언하며 격려하는데 있었다.

3. 초보적 교육 (경건교육)

「칼빈은 문예부흥의 영향을 받아 제네바에 학교를 세워 시민양성에 이바지하였다. 학생은 5, 6세부터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제네바에 있는 학교들에서 초보적 교육을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경, 읽기와 쓰기, 문법 그리고 수학을 공부해야 하며 이 과목들은 다 모국어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교양과목의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여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음적 신앙의 요점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목사가 시험하여 그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제네바 시의 장래를 복음적 신앙으로 확립시키려고 하였다.

「칼빈은 아동은 경건에 의거한 생활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동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배워야 하는데, 단순히 마음과 말로써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모든 생활이 성경에 복종하는 것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답변만이 구원에 관해서 아동이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

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칼빈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하며 기독교 생활양식을 훈련시키도록 요구하였다. 목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모든 가정을 심방하여 부모들이 이같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교회건물은 예배의 장소로 사용됨과 동시에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되었다.

「칼빈이 그의 교육활동에서 생활훈련을 강조한 것은 경건훈련을 통하여 전체적인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칼빈의 생활교육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며, 그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적 생활철학은 근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4. 상급학교 설치

「칼빈은 목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급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학교들은 켈랑톤, 스텝 그리고 다른 복유럽 인문주의자들과 신교도들의 학교와 같이 경건을 배우도록 하였다.」

교과과정을 보면 제네바에 있었던 상급학교의 7학년 교실은 읽기와 문법, 라틴어, 교리문답서를 배웠고, 그 후에 라틴어 고전과 라틴어 작문을 공부하였다. 더 상급반에서는 헬라어를 공부하여 복음서와 서간문들을 헬라어로 읽고 쓰도록 하였다.

다른 종교개혁 학교들에서와 같이 논리학과 수사학도 상급학교에서는 공부하였다. 학생들은 그들이 고전문학이나 종교적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기독교 신학을 구득하도록 요구되었다.

5. 음악교육

「칼빈은 어린이들이 교회음악을 부를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음악이 마음을 움직여서 고상한 성품과 도덕심을 일깨우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찬양한다. 그에게 있어서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뛰어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칼빈은 그의 출애굽기 주석에서 예술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존중되

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술에 의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생활을 품위있게 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세계가 인간에게 주는 것보다 더욱 높은 실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고상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칼빈은 보았다.

6. 교사의 역할

「기독교 강요」⁵에서 칼빈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자신의 지혜의 무한한 보고를 보이시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아무도 더할 수 없는 안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나,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바라는 목적대로 바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빛을 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을 발견하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칼빈에 의하면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의 신적인 소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 교장은 취임선서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맹세하도록 요구되었다. “나는 이 일 곧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부름받은 바 되었고 내가 믿는 이 일에 대해 나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엄숙히 맹세합니다.”⁶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교사가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간다면 그는 자신이 느끼는 책임감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과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을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생관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교사가 정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짐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르치는 기술에까지도 정통할 의무를 교사로 하여금 지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제한된 선까지 달성하고 그만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계시된 진리의 조명을 받아 학생의 정체성과 학생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학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으며, 이성적, 도덕적, 영적 존재이며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아울러 책임적 존재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교과서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일, 교실수업에 조심스럽게 주목하고 반별 토론에 신중하게 참여해야 할 일 등 교육과정 속에 자신을 참여시켜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⁷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를 하나님의 증인이요 사자로 보기 때문에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으로서의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지위와 역할은 결정적이다.

참된 기독교 교사는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활동과 경험을 일으켜 고무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성경적 원리와 방법으로 양육하여 그에게 잠재한 부정적 요소들을 억제 개선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발굴 신장하여 유능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세계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영위하는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케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 훈련이 요구되는데 개신교의 전통적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 ① 성경연구 및 교리, 역사, 지리, 고대의 품물과 관련된 주제들의 연구
- ② 학생연구와 그의 심리연구
- ③ 교수기술과 방법훈련 등이 있다.

7. 학생의 책임성

칼빈이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이 져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의 학문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그가 제정한 규칙들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그들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되어진다.⁷

“해마다 5월의 첫째 날이 되기 전 3주 동안 공적인 교수 중 한 명은 순

⁵ 김문제역, 기독교 강요 제1권 15장 (서울: 세종문화사, 1979) p. 139.

⁶ J. Calvin,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XVIII, trans. by W. S. Reid (Nov. 1955), p. 33. 오인탁 외, 기독교 교육사, (서울: 도서출판교육목회, 1992), p. 199에서 재인용.

⁷ J. Calvin,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Op. Cit., trans. by W. S. Reid (Nov. 1955), p. 30. 오인탁 외, 기독교 교육사, (서울: 도서출판교육목회, 1992), p. 204에서 재인용.

빈에 따라 정오에 강당에서 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불어로 어떤 주제 강연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각 반별로 정렬해서 자신의 능력껏 교수의 강의를 받아 써야 한다. 강의를 끝나면 학생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5시간 안에 혼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날의 강의내용을 라틴어로 번역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 인간은 이 자유를 통해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동한다. 학생은 무엇을 탐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그의 자유를 사용하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식에 의해 방향지워지지 않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 칼빈은 학생이 매우 복잡하고 깊이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격려하는 일과 함께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일깨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8. 교리문답서

칼빈은 음악교육뿐만 아니라 교리와 태도와 도덕과 일반적 행실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의 교육사상은 교파적 교육이 아니었다. 그가 교리문답을 기록한 것은 어떤 특정한 교리를 어떤 교파,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회 사이에 성도의 교통과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나의 시도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그의 교리문답서는 폭넓게 사용되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기초가 되었다.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은 의식 중심의 로마교회로부터 성경 중심의 복음적 예배형태로 바꾸어 놓았다. 신자 개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에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내용을 문답체로 요약 설명하는 교리문답서가 제작되어 가정, 교회, 학교에서 사용되었다.

9. 규칙과 법규

또한 개혁자 칼빈은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한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책임있는 주체자를 교육하

는데 그의 교육적 역점을 두었다. 그것은 교회의 규칙과 법규를 지키는 생활이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같은 규율있는 훈련을 받는 일은 중세기 수도원에서 강조된 침묵의 복종과는 달랐다. 복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임있는 주체자의 형성을 위해서 규율이 극도로 중요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IV. 칼빈의 교육사상의 영향

칼빈의 교육사상은 여러나라에 확대되어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종래에 학교가 없었던 촌락에까지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여 일반 서민의 보통교육을 적극 추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 지도자인 요한 낙스는 제네바의 교육체계를 스코틀랜드에 소개하였다. 그는 전교도들에게 교육의 의무를 주장하여 공립 의무보통교육제도의 수립을 요청했으며, 1646년에는 전교구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령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는 교육교본을 발간하였는데, 이 내용은 칼빈의 사상을 옮긴 것으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에 의하여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등에 큰 영향을 주었고, 캠브리지 졸업생들에 의해 칼빈의 교육사상은 뉴잉글랜드를 비롯하여 초기 미국교육에 큰 영향을 주어 성경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게 하였다. 뉴잉글랜드에서는 1630년 이래 꾸준히 교육 개혁을 계속하여 1642년에는 초중등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매사추세츠 교육령을 공포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파에 의하여 수많은 국민학교와 상급학교들이 세워졌고 8개의 대학교가 세워졌다. 이와 같이 칼빈의 교육 영향은 서구문화의 기초를 만들고 교육의 일반화에 지대한 공적을 세웠다.

유럽대륙과 영국으로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와서 수학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교리는 세계의 기독교계 곳곳으로 전파되었다. 낙스는 대중교육이 프로테스탄트 주의의 가장 강력한 방벽이요 국가의 가장 확실한 기초라는 신념을 가지고 제네바에서 돌아 왔다. “로마주의와 함께 사제가 가고, 칼빈주의와 함께 교사가 간다.”는 속담이 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칼빈주의의 학문애호 정신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폴란드, 아메리카 등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칼빈주의적 가정들을 고무시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녀교육을 위해 절약하게 하였다. “지식인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자가 무지하게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야말로 큰 비극이다”라고 말한 카알라일의 유명한 격언은 그 핵심이 칼빈주의적인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칼빈주의가 가는 곳마다 지식과 학문이 장려되었고 건전한 사상들이 훈련되었다. 칼빈주의자들은 큰 사원의 설립자들이 아니라 각급 학교의 설립자들이었다.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언약교도, 폴랜드와 독일의 개혁주의자들이 미국으로 올 때, 그들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학교도 가지고 왔다.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3개 대학교인 하바드, 예일 및 프린스턴은 본래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세워진 칼빈주의적 학교로서 다른 학문분야는 물론 신학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건전한 기초를 제공해 주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636년에 설립된 하바드는 주로 목사들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첫회 졸업생의 과반수 이상이 목사직으로 진출했다. 때때로 대학의 모체라고 불리우는 예일은 상당 기간동안 엄격한 청교도 학교였다. 스코틀랜드계 장로교인들이 세운 프린스턴은 철저하게 칼빈주의적 기초를 가진 학교였다. 벤 크로프트는 “보통교육의 창건자요 무료 의무교육의 창시자는 바로 칼빈이다. 칼빈주의가 우세한 곳마다 국민들의 지력을 고취시켰으며, 모든 교구에 공립 초등학교를 세웠다.”라고 말하였다.

V. 칼빈주의와 교육의 필연성

칼빈주의는 지성적인 인간을 요구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에 속달되고 이 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두 추구하려면 인지적 훈련이 요청된다.

칼빈은 참 신앙은 지적인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배움없는 경건은 결국 경건이 없는 배움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은 그의 교리체계의 수용과 보급은 그것을 해설해야 할 사람의 훈련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해야 할 일반 대중들의 지성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칼빈주의와 교육의 관계는 칼빈대학의 미터교수⁸가 말한 다음 두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다. “과학과 예술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사용 발전되어

야 한다.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그의 사상의 구현인데 그 순수한 형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덕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모든 학문의 통일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이유 외에도 칼빈주의자는 왜 항상 교육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가져왔는지, 왜 교육기관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학교들이 칼빈주의 교회와 함께 나란히 세워지는지, 왜 칼빈주의자들은 현대 대학교육 운동에 그토록 강한 비중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유들을 갖고 있다.

이 실제적인 이유들은 칼빈주의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반 대중의 교육없이도 편리하게 지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정치나 교리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평신도와 구별되는 교직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교회의 정치나 교리를 일반 대중에게 훈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구원을 위해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란 단지 교회가 신봉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앙, 교리들에 대해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예배에 있어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 성례전이었기 때문에 설교는 거의 불필요한 것이었다.

칼빈주의자들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이었다. 교회정치는 장로와 평신도의 수중에 있으므로 그들은 교회의 정책과 교리상의 중요사항을 결정해야만 했다. 더욱이 평신도는 성직자 계급이라는 중간 매개 없이 자기의 구원을 완성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으므로, 교회가 신봉하는 신앙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했고 그가 믿는 신조를 알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당시로 볼 때 그것은 상당히 지적인 신조였다.

루터교인들에 있어서도 일반 대중교육은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와 같이 긴급한 문제가 아니었다. 루터교회에서도 역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루터교의 평신도들은 교회행정과 교리적인 문제를 결정해야 할 책임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칼빈주의자들이 교육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과학을 총괄하는 분이시며, 또 한편으로는 칼빈주의자의 종교적 체계가 그 존립을 위해 대중교육을 필요로 했다면, 칼빈주의자들이 최대한으로 학문을 강요했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칼빈주의자에게 있어서 교육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장

⁸ 로레인 비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김남식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6), p. 484에서 재인용.

로교와 개혁주의 교회는 교역자의 훈련기준이 높은 데 이 점도 유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의 교육관, 제네바 대학에서의 실제 교육상황, 다른 나라에서의 칼빈주의 교육의 영향 그리고 칼빈주의에서의 교육의 필요성에 비중을 두고 칼빈의 교육사상을 고찰해 보았다.

비록 칼빈이 구체적으로 상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선각자로서의 칼빈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이해 및 규칙성과 가정교육에 대한 칼빈의 혜견은 현대 교육실제에서도 매우 강조되는 분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교육사상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칼빈의 사회정의론

정 명 자 *

I. 서론
II. 일반적 정의관의 유형과 한계
1. 권리로서의 정의
2. 의무로서의 정의
III. 칼빈의 정의관
IV. 결론

I. 서론

정의(Justice)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탐색된 이래 현대사회에서도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정의를 율법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마 23:23 the weightier matters of the law as being justice and mercy and faith).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며 정치 경제적 변혁을 감행하여 왔다.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고 이의 실현을 도모한다. 나날이 개인적인 성취가 강조되는 경쟁사회에서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가 필요한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사회정의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 광신대학교 기독교아동학과 부교수